

## “성결의 빛 안고 열방을 향하여” 105회기 출범

### 신임총회장 이종만 목사,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 · 황제돈 장로 선교 120주년 맞아 ‘비전 2030’ 통해 새 선교 비전 제시

선교120주년 연차대회 및 제105회 총회가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일정으로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성결의 빛 120년, 재림 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592명의 대의원 중 5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출을 비롯한 회무를 처리했다. 임원선거에서는 목사부총회장과 서기를 제외한 임원 후보가 모두 단독으로 입후보한 가운데 이종만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초미의 관심을 보인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지난 제100회기 총회장을 지낸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당선됐다.

이상문 목사는 “은퇴 전 마지막 소명이라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총회장을 잘 보필해 사중복음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전도운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로부총회장 황제돈 장로(신림제일) △서기 강명국 목사(늘사랑) △부서기 임태진 목사(영암) △회계 박정식 장로(구로중앙) △부회계 김용빈 장로(신수동)가 각각 당선됐다.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이종만 목사는 “그간 우리가 지켜온 보수적 신앙의 가치와 진리를 흔들림 없이 계승하겠다”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중간세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한국교회에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는 성결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비기독교인도 감동할 수 있는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교회 사명이라 생각하고 성결한 성도를



키우고 받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04회기 임원들이 순서를 맡아 드려진 개회예배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바울은 부유함과 공평함 속



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며, 육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동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풍량이 닥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자”고 설교했다.

120여 명으로 구성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합창단의 찬양과 지방회장들이 안수위원으로 참여한 성찬예식 등이 진행됐으며, 기성총회장 안성우 목사, 나성갑목 최형영 목사, 예장백석 총회장 김동기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104회기 총회임원 및 지방회장, 연합기관장 · 협력기관장 등을 비롯해 3대 장로가족, 자랑스러운 성결인, 30년 이상 근속 교역자 등을 대상으로 공로패 및 포상 수여식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날 저녁시간에는 연차대회를 진행했다. 교단 선교 120주년을 맞아 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

비전 2030 로드맵’이 발표됐으며 선교사 일당은 정직한 보고와 투명한 행정, 활발한 사역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 및 위기관리 정책 표준화, 선교사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하며 미래 선교 역량 강화와 건강한 계승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성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원로목사들에 대한 찬사와 다음세대를 이끌 목사안수대상자들을 축하하는 감동의 무대도 함께 선사됐다. 목사안수대상자들은 오는 23일 성결대학교에서 총회주관으로 목사안수식이 거행된다.

둘째 날에는 산하기관 및 각부 감사보고와 결의보고, 예산안 심의 등의 주요안건이 양일간에 걸쳐 처리되었다.

[관련기사 2, 3, 4면]

#### 총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예성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제105회 총회장으로 세위 주신 것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를 함께 세위 가라는 귀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맡겨 주신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우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헌장과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성인이었습니다. 선배 목회자들과 믿음의 어른들께서 사중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헌신하셨는지, 또 우리 교단과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과 거룩한 헌신이 오늘의 예성을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성의 가치와 보수적 진리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 가겠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과 성결의 정신 위에 굳게 서는 교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의 경륜과 헌신을 깊이 존경하며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는 더 넓은 기회와 희망의 길을 열어 주겠습니다. 저는 중간 세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서로를 이어 주고, 갈등보다는 연합을, 정제보다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정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드렸던 비전과 공약들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실천하며 신뢰받는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보여 주기 위한 행정보다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예성의 목회자라는 사실이 자랑이 되고,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과 자부심이 되는 교단을 세워 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로, 그리고 우리 교단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으로 리더십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단,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되는 교단,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성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종만 목사



## 총회장 · 원로장로 취임식 및 시무장로 · 명예장로 임직 감사예배



총회장 이종만 목사



원로장로

손기수 정인주 정주록



시무장로

김형배 박병기 신종현 원경식



명예장로

김순호 김종권 양철수

#### 초대의 글

예성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수샘교회가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의 총회장 취임식과 원로장로 · 시무장로 · 명예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성교단의 모든 분들을 초청하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수샘교회를 예성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생명수샘교회 성도일동 드림 -



교회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71번길 22  
홈페이지 : http://www.lwchurch.co.kr  
전화번호 : 062574-1172~3 팩스 : 062576-117



**일시** 2026. 5. 31.(주일) 오후 3시  
**장소** 생명수샘교회 글로리아 예배실(3층)